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께

추수 감사절 기간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며 또한 여기까지 함께 해 오신 후원교회와 후원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감사절을 보내며...

감사하게도 대만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든 교회가 감사절과 성탄절 준비로 조용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보내는 2020년이었지만 영적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가 활동했던 중국에서 선교사를 대거 추방하고 중국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 제자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확대된 것에 비추어 묵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 중 하나인 '화은당' 이라는 교회에 갔더니 중국 공산화로 추방된 선교사들이 1950년에 와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런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닥친 환난을 보다 큰 시각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행진은 종종 핍박을 통해 확산되었음을 상기하며 중국에 집중되었던 선교사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선교하는 교회를 묘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의 교회가 작금의 어려움 속에서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복음의 문을 열어 주소서

저희 집 근처의 타이베이 대학 캠퍼스를 땅 밟기 하며 이곳의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연결될 줄 알았던 기독교 동아리 담당 교수와의 미팅이 자꾸 연기되고 있습니다. 좀더 기도로 준비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몇 주전에는 개교기념 운동회가 있었는데 가장 인기있는 순서는 각 단과대별로 참여하는 마스게임이었습니다. 참여하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수하고 친절한 마음 밭을 가진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 대학생들도 우울과 스트레스 장애 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부인이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꺼리기에 아직은 접촉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준비된 영혼을 연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에 한국어 동아리 등을 열어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사랑으로 품는 사역 밖에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과별 대항 마스게임 공연 모습





축제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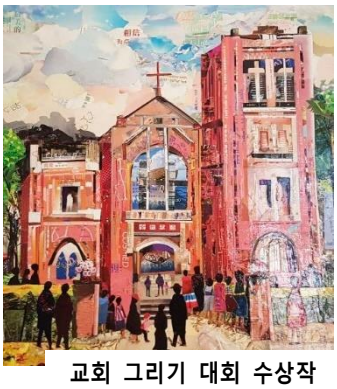
타이베이 市 교회 방문

11월 초에는 대만의 한 독립 교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그 분은 제가 1987년 견습 선교사로 왔을 때에 한인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그 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20여년이 지나니 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셨습니다. 오랜만의 재회였지만 스스럼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분을 통해 대만교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0여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맺은 관계를 지금도 지속하게 하십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용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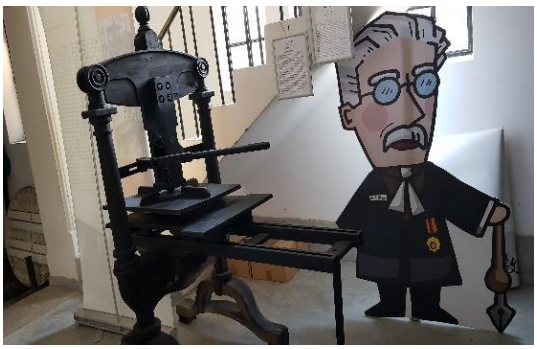


한국인으로서 대만 독립교단 총회장을 맡고 있는 임혜선목사

대만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한국보다 조금 앞선 1865년 영국장로회 맥스웰 선교사의 남부 선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장로교가 대만교회에서 근대문명과 복음을 전해준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사회참여에 적극적입니다. 그 중 1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타이베이 소재 제남 장로교회는 대만 최초로 출판인쇄기를 사용하여 교회신문을 발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첫번째 만남으로 제남 교회의 네 분의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교제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기 대회 수상작



대만 최초의 인쇄기-제남교회 소장



제남교회 본당

이란(宜蘭) 市 교회 방문

한달에 한번은 좀 먼 지역을 1박이나 2박 일정으로 돌아보려고 계획하에 10월에 남쪽으로 200여 km 떨어진 타얄 원주민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11월에는 동쪽으로 200여 km 정도 떨어진 이란 市를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에서 10여년간 동역했던 현지인 목사님이 소개해준 대만인 선교사 부부가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고 1박을 하며 그곳 상황을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처음 만났지만 저희에 대해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저희가 사역했던 지역에서 같은 시기에 이분들도 선교를 했기에 마치 고향 친구를 만난 듯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며 하루만에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대만은 각종 민간신앙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 전도가 참 힘든데도 날마다 부부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주변의 학교를 여리고 성처럼 돌며 기도로 선포하고 계셨는데 그날은 저희도 같이 동참하였더니 큰 힘을 얻는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어린 시절 약물중독으로 17년을 소망 없이 지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새사람이 된 후 자녀도 갖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한두 명씩 데리고 함께 살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며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의 원주민으로 교회에서 가정의 온기를 느끼며 점차 모이고 있었는데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연상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혼자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예수 가정'을 이루는 비전을 놓고 저희도 뜨겁게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은, 이란 시에 속한 전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그 실천으로 이번 성탄절에 초교파 연합으로 복음 행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기에 대만에 선교자원을 집중하게 하시는 뜻이 있음을 목도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란 시에 있는 삼성교회



이 지역에서 구원의 나팔을 부는 비전을 그린 그림을 들고 담임 목사 부부와 함께



교회 내부를 예쁘게 장식하고 있는 모습

기도제목

1. 삼성교회 및 이란 市의 교회 부흥을 위하여

이번에 방문한 삼성교회의 목사님 부부가 소외된 원주민들을 보듬는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또한 이란 시에서 계획하는 성탄절 복음행진을 통해 전 도시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교회가 연합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2. 대만 교회 지도자들과의 신뢰를 통한 사역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여러 현지교회 지도자들과 관계가 원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교회의 금요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담임목사님이 그 지역 교역자 모임에 초청할 정도로 마음을 연 것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한국어 교실을 통한 선교를 위해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학생 혹은 성인 한국어 교실을 통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요.

2020년 11월 29일 타이완에서, 황창연 오순영 선교사 올림